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해감국사 '劍覺'

해감 국사는 13세 되던 해 가을 장성 백양사에 갔다가 물외암(物外庵)의 선경(仙境)을 보고 세속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곧바로 진(眞) 대사에게 나아가 출가하였다.

출가하자마자 경율(經律)을 수학한 국사는 남쪽 지역을 유력하며 제방의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부후 선사에게 대장경을 배운 국사는 당시 수백명의 제자들 가운데 운곡 총회(雲谷沖會), 송월 응상(松月應相)과 함께 '법문 삼결(法門三傑)'로 꼽힐 정도로 법문에 능통했다. 국사의 공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휴정 선사가 묘향산에서 선풍을 크게 떨쳐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가 법을 구하였다. 휴정 선사는 국사를 보자마자 불도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수행자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로 받아들였다. 휴정의 회상에서 수렴한 지 3년 만에 당(堂)을 열고 법

비성(飛星)과 폭죽(爆竹)의 날카로운 칼날 우뚝하고, 갈라지는 돌 무너지는 언덕의 기상 높도다.

사람을 죽이고 살림이 왕의 검과 같은데, 능률한 위풍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국사의 깨달음은 무명(無明)의 적을 죽이고, 법신(法身)의 불(佛)을 살리는 살활기전(殺活機轉)의 선풍이다. 선관(禪觀)은 마조·황벽·임제·덕산·조동 등 여러 조사들의 기풍을 두루 수용하고 간화선과 목조선을 결비하여 선의 기풍을 폭넓게 전수하였다. 국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살활기전(殺活機轉)이었는데, 활구(活句)를 묻는 제자에게 "동국삼산(東國三山)의 태능이 나이 아흔이 되도록 백가지 일에는 무능하나, 그러나 종문(宗門)의 눈이 활짝 떠서 한 순간으로도 죽고 살리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구나"고 하였다.

또한 국사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

“달은 한마음의 도장(印)이요  
구름은 만권의 경전이다”

화(化)를 폈다. 이때 국사는 약관 20세였으며, 스승 휴정은 국사에게 다음과 같은 계승을 내렸다.

“그림자 없는 나무를 쪼개다, 물속의 물거품을 태우니, 어허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 소를 타고 소를 찾다니(乘無影樹 焦盡水中漚 可笑騎牛者 騎牛更覓牛).”

국사는 이 계승을 화두로 경서에 밝은 제방의 종장(宗匠)들을 찾아다니며 20여 년간 여주었으나 그 뜻을 명확히 일러주는 이가 없었다. 결국 국사는 20여 년간의 두타행을 그만두고 스승 휴정이 있는 묘향산을 다시 찾아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영하 40℃의 추위가 계속되는 한겨울 어느 날, 국사는 눈바람에 나뭇가지가 뿌러지는 모습을 보고 무생무멸(無生無滅)의 진리를 확연히 깨달았다.

리즘에만 안주하지 않고 편양 언기 선사와 더불어 산속의 수행을 추구하는 수행자로 살아간 무위인(無位人) : 자기의 본래면목을 깨달아 경지에 이른 사람을 뜻함)이기도 하다.

교(教)를 묻는 제자들에게 국사는 “도(道)를 배워 세월 깊고 깊으며, 시공을 넘어 온 누리에 하나의 영심(靈心) 뿐. 계절 바뀐다고 영심도 늙으랴, 공자와 부처도 두 마음 아니네. 물은 승니의 파란 눈이요, 산은 부처님의 푸른 머리 로다. 달은 한 마음의 도장(印)이요, 구름은 만권의 경전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일문(一門)을 이루는 소요종파(逍遙宗派)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 명종 17년(1562) 담양에서 태어난 국사는 인조 27년(1649) 세수 88세 법랍 73세로 입적했다. 입적왜란 때는 승군으로,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의 서쪽 성을 수축한 국사에게 효종은 조선조 처음으로 '해감국사(海鑑國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비를 세웠다. 법명은 태능(太能), 법호는 소요(逍遙), 시호는 해감국사, 속성은 오씨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검각(劍覺: 부처님의 칼)

飛星爆竹機鋒峻(비성폭죽기봉준)  
烈日崩山氣像高(열석봉의기상고)  
對人殺活如王劍(대인살활여왕검)  
震震威風滿五湖(능률위풍만오호)

“육바라밀 실천해야 불법 체득”



◇중생은 번뇌망상을 끊어내기 기르는 '명령구리'라고 말하는 정일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수백수천번 읽어 진리를 체득해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일러주신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정일스님 (보광사 조실)

9살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슬픈 눈망울을 본 이후 다시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스님. 헌 책방에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구해 읽으며 염불에 열중했고, 그래서 불문에 귀의(歸依)할 것을 결정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스님. 출가 후 금요, 춘성, 전강, 동산 스님 등 선지식들을 찾아 수행자의 도리를 배우고, 50년 수행생활 동안 부처님 말씀에 한 치어긋남도 없이 살려고 노력해온 스님이 정일(正日)스님이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로 스님을 뵈러가는 날, 울긋불긋 낙엽들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며 '무상(無常)'의 도리를 몸으로 전하고 있었다. 시자 현중스님의 안내로 보광사 1층 스님

도 부처님 법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에게 경전을 수백번 읽도록 하는 것은, 화두를 들어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

보광사의 '신도교육 프로그램'은 엄격하고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보광사를 처음 찾은 불자는 우선 광명진언을 하루 1000번씩 21일간 외우고 천도재를 지낸다. 그리고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관세음보문품경> 50독을 마치면 천도재를 또 올린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의 번뇌를 한꺼풀 벗었다는 뜻에서 지내는 천도재는 <선가귀감> 50독, <원각경> 300독, <법화경> 30독을 할 때마다 계속돼, 다시 한번 <선가귀감>을 50독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때 정일스님은 교육을 이수한 불자를 불러 공부를 자상하게 점검하는 한편 '이 빛고' 화두를 준다.

“부처님 닮으려면  
경전 수천번 읽고  
꾸준히 수행”

의 처소에 들어 삼배의 예를 올리자, “상(相)내는 일이라 극구 사양했는데... 차나 한잔 함시다”라며 스님은 자애롭게 맞아 주신다.

스님은 지난 79년부터 보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해 범어사, 망월사, 동화사, 용화사, 통도사, 백련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하던 스님이 북한산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고 있는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 계기가 돼 서울에 머물게 됐다. 이 때 한 재가불자가 스님에게 현 보광사 터를 기증했는데, 그 터에 보광사가 건립되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오붓한 수행도량이 되어 오고 있다.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의 생각을 가지는 틈틈이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기초를 다져 화두를 드는 것

“우리의 머리 속에는 번뇌망상과 눈으로 익힌 알음알이만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경전을 한두번 읽어서는 그 오묘한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번뇌망상의 벽으로 갇힌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우물쭈물 하지만 본래 모습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경전을 알음알이로 해석하고 불법을 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수백수천 번 경전을 읽게 하는 것은 인과因果를 알고 그 속에서 번뇌망상을 보고 본래 자성을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상좌들 숨소리까지 살피  
그래서 정일스님은 스님이나 불자에게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 외에도 육바라밀을 함께 실천해 불법을 체득하는 경지에까지 올려서야 한다고 항상 가르친다. 스님에게 있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라는 육바라밀 즉, 육화정신은 불법을 배우는 불제자들의 실천적 생활 윤리이다.  
스님은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매일 관음정진 5만독을 시켰다. 스님은 상

정일스님은?

“지금도 선방에서 함께 참선수행하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때론 경책하기 위해서는 때를 드는데 망설이지 않으시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수행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처럼, 정일스님은 70세의 나이에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선객이자, 자신의 성취를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전해주는 엄격한 스승이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6년에 조계사에서 금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어서 40여 년간 망월사, 범어사, 용화사, 통도사, 백련사, 만덕사 등의 선방을 돌며 참선수행했고, 해인사, 불국사, 용화사, 정각사 선원장과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망월사에서는 천일기도를 성만했으며, 이후에도 한시도 게으르지 않은 수행과 투철한 용맹심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선학원 이사장을 맡고있는 정일스님은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 주석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공부의 핵심을 짚어 주고 계시다.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덕분에 매일 수많은 대중들이 '스님의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 욕심'이 생긴다'며 1km 남짓한 오르막길을 걸어 보광사를 찾고 있다.

현대불교 THE HYUNDAE BUUKYO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부처님이 계셨을때 시멘트가 있었다면?  
시멘트  
시멘트법당의 대명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왕우2동 490-29  
대표전화: (02)494-4890-1